

대한설비건설협회 각시·도회는 회원사를 위한 업무편익 증진 및 회원사의 활발한 영업활동을 위한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200호를 맞아 그동안 시·도회의 활동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도회 활동상황’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참여한 시·도회가 있는 반면 참여하지 못한 시·도회가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각 시·도회 활동에 회원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서울특별사회

# 서울특별사회 제6대 집행부 사업실적

### ■ 관내 설비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추진

모든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 에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되고, 교육청공사에서도 BTL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내 설비건설공사의 분리발주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관내 주요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 설비건설공사 분리발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건의했다. 또한 2005년 5월 서울시에 서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규제개혁추진단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기계설비분리발주 활성화”를 건의, 서울시로부터 관내 중·소 전문업체의 전문성 및 보호육성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결과, 최근 2년간 관내 발주기관으로부터 약 1,100억원의 설비건설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했다.

### ■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과 이익증대를 위한 자문위원 활동 강화

회원사 경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률분쟁·노무관리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 각 발주기관별 입찰 및 계약제도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진정접수를 위한 전문상담창구를 개설해 회원사 권익보호와 경영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 건설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체제 강화  
설비건설기술인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인 인정기능사 경력인정제도를 성실히 수행하고, 수도권 전문대학 설비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한국폴리텍 I 대학 등과 산학협약을 체결, 회원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비건설관련 각종 기술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제1회부터 제17회 인정기능사 까지 1,630명(전국:5,174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고,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매년 수도권 5개 전문대학의 건축설비관련 재학생 32명에게 2,7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폴리텍 I 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 건축설비 CAD 및 적산교육을 실시해 6차에 걸쳐 266명의 교육수료인원을 배출했다.

■ 정부위탁업무의 공정수행 및 회원사 각종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공능력 평가 공시업무 및 정부공사 입찰 적격심사 자료의 엄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부위탁업무 수행의 대외공신력을 제공하며, 회원사 경영지원 교육에 역점을 둔 각종 강습회를 개최,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 효율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관내 1,200여개 업체 4조원 규모의 기성실적(공사건수 : 4만여건)공사와 약 6천여명의 신고기술자, 10개 항목의 전년도 결산서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계약클레임, 건설공사 노무실무, 건설관계법령해설, 입찰·계약 제도실무, 실적신고교육 등 최근 2년간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여 회원사 임·직원 2,319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 회원중심의 서비스 향상과 설비건설 한 가족 운동 전개

신속한 회원정보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업무의 온라인서비스 추진, 대 회원사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하여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봉사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의 결속력을 높이고 설비건설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표회원을 대상으로 단합등반대회 및 경영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간 우호와 친목을 다지는 설비건설 한 가족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CS(Customer Satisfaction)우수직원을 선별, 회원서비스정신의 고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연 2회 경영간담회 및 분기별 단합등반대회를 개최, 회원사간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최근 2년간 회원사 각종 교육지원사업 현황〉

■ 기술실무 심화교육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회차	장 소	교육수료인원	비 고
건축설비 CAD 건축설비 적산실무	한국폴리텍 I 대학	6차	용산구 보광동	266명	
건축설비 CAD	경원전문대학	2차	경기도 성남시	40명	
총 교육인원				306명	

■ 강습회 전체교육

교육명	일자	장소	참석인원	교육주요내용
건설계약클레임	2005.5.24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임직원 104명	-건설공사 계약관리 방법 및 실무 -건설공사 분쟁발생시 대처방법 -최근 건설공사 분쟁관련 사례실무
건설공사 노무실무	2005.11.23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임직원 144명	-건설현장 노무실무 처리방법 -건설공사관련 4대보험, 질의응답
『건설법』해설	2005.12.22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임직원 156명	-최근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질의응답
2005 실적신고 교육	2005.12.6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임직원 635명	-건설업 통계조사표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신고요령
『하도급법』해설	2006.2.3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임직원 176명	-하도급법 목적과 체계, 적용범위 -하도급법 세부내용(계약체결등)
회원사 대표자 노무특강	2006.3.29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대표자 118명	-임금 및 퇴직금 문제점 -4대보험 및 인사노무 현안문제
『지방계약법』해설	2006.4.26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임직원 153명	-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미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질의
2006 실적신고 교육	2006.12.8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임직원 655명	-건설업 통계조사표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신고요령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2007.1.23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임직원 178명	-정부조달포탈사이트 이용방법실무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총 교육인원			2,319명	

## 부산광역시회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회는 회원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비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회(회장 김광환)는 회원사에 대한 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설비기술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는 해마다 대학교수, 박사급 연구원, 설비관련업계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설비건설업계의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 하고 있어 회원사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6년 강연 내용은 △건축설비 에너지와 자원절약 관련 제도 현황(박종일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교수) △한국증권거래소 별관 종합 개보수 공사 설계사례(김석완 삼신설계주식회사 사장) △ESCO사업 안내

및 성공사례(이정만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축열기술 및 설계법(Nagahi Saya 일본국립미에대학 교수) △다중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응방안 및 최근의 연구동향(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시스템 멀티에어컨의 기술동향 및 향후 전망(황광일 삼성전자 공학박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설비기술 세미나는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냉동협회와 90년 이후 매년1회 이상 공동으로 주관하여 건축설비 관련 실무사례 및 각종 데이터, 학술·연구자료 등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세미나다. ●

## 부산광역시회

# 중국 안장항업협회와 상호교류



부산광역시회는 중국 안장항업협회와 상호교류를 위해 중국 방문 중, 상해시 서강병원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부산광역시회는 중국 상해시 안장항업협회와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초청 · 방문하고, 한 · 중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 설비기술 관련 연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을 견학하며 서로의 건설시장과 해외진출 및 설비기술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홍흡식 빗물 배수 시스템 가설과 주택 동일층 배수 시스템 가설 기술의 응용상황과 기술규정」, 「동일 업종의 회사 경영관리 운영 방법의 기본 모식과 항목 건설관리 방법의 기본운영 모식에 대한 토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세미나는 신기술 · 신공법 기술동향, 경영환경 예측,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다양한 기술의 소개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기술력 제고,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 회원사 임 ·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회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편리한 생활에 기여, 무한경쟁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헤쳐 나가야 하는 회원사를 위해 기술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설비기술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다. ◉

## 인천광역시회

#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출범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를 비롯한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인천 건설관련단체연합회 출범을 기념해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지역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건설 관련단체연합회가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를 주축으로 출범했다.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회장 황규철)는 인천지역 8개 건설관련 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별도 출범식 없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인천연탄은행에 연탄과 쌀 전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인천지역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조율을 통해 건설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건설산업의 위상 찾기와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공과 설계, 시설물 유지까지 건설 전 분야를 망라하는 단체답게 상호 긴밀한 협력과 친목 도모는 물론 지역건설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출범은 3~4년 전부터 필요성을 인식한 건설단체별로 몇 차례 논의되어 왔으나 구심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전태근 인천광역시회 회장은 “인천지역 건설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와 함께 설비건설인의 권익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의 소속단체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건축사회 인천시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인천시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 등이다.○

## 울산 · 경남도회

# 산 · 학협력 및 분리발주 간담회 추진

울산 · 경남도회(회장 김재홍)는 설비건설업계를 이끌어갈 후학양성을 위해 1997년부터 마산창신대학, 울산과학대학, 양산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긴밀한 산학협동과 더불어 장학금 전달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 산학협력에 의한 회원사 임직원 교육으로 업무향상에 기여

울산 · 경남도회는 산학협력을 맺은 마산창신대학, 울산과학대학, 양산대학과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및 하드웨어 중급과정 전산교육을 개최하고, 150명의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인정기능사 자격취득자 240명에게 인정기능사 보수교육을 실시, 회원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산학협력체결의 일환으로 대학과 공동으로 설비기술세미나를 개최, 설비시공 신기술 도입과 신기술 개발 등을 소개함으로써, 회원사의 시공능력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노동법 위반으로 회원사가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무관리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임직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했다.

울산 · 경남도회는 산학협력대학과 상호 협력으로 회원사 소속 임직원에 대해 진학혜택을 부여, 기술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산학협력 관계로 울산 · 경남도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실적신고강습회, 법령개정 강습회 등의 장소 및 시설물을 대학에서 무상지원 받고 있다.

특히 울산 · 경남도회는 학업이 우수하나 학비가 없어 어려운 성적우수 대학생들에게 매년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 분리발주 간담회 추진 및 결식아동돕기성금 전달

울산 · 경남도회는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2001년부터 경남도교육청 및 울산교육청에 결식아동돕기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와 설비건설업계의 위



상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결식아동돕기를 추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경남도교육청에 매년 400만원의 성금을 전달, 관내 교육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성금전달식과 함께 교육감 및 산하 실·국·과장들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경상남도 내 전 교육장과 학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재홍 울산·경남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 울산·경남도회 산하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

울산·경남도회는 2개 시·도(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둔 광역지역이므로 회원 상호간 유대관계 및 지역별 특성과 의견 단일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 해소 및 회원 간 화합단결, 회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회 산하에 지역별회원사친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1. 지역별 회원사 친목협의회 구성 및 지원

1992년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울산지역협의회'와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마산·창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협의회',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산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경남도회는 각 지역별 협의회에 활발한 활동을 위해 매년 1,500만원의 지역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2. 지역협의회 활동사항

지역별 협의회는 협회 사업추진동향 및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회 직원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지역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도회에 제출하여 문제점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비건설업역 확대를 위한 도회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지역 발주기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과당경쟁 및 저가투찰을 상호 방지로 록 결의하고 지역공사 성실시공에 노력, 현재 지역 발주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지역별 협의회는 회원 경조사에 상호방문과 친선체육행사 등으로 친목을 다지며, 특히 울산·경남도회 총회에 함께 참석해 업계현안을 나누는 등 회원사 화합과 단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병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산재사고 및 회원사 가족들에게 외래 및 입원진료를 포함한 일반,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등 지역회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별 협의회는 또 각 지역협의회간 우호관계 증진과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 2003년부터 도회가 실시한 해외시찰에 적극 참석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아울러 각 전문공종(건축설비, 플랜트, 가스)별 사업을 서로 이해하고 정보 공유함과 동시에, 해외 설비기술동향 파악 등 기술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





산학협력대학 장학금 전달식 기념



산학협력대학과 노무관리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 (공인노무사 초빙)



일용근로자지급조서 및 4대보험 관련 간담회 직무교육



시·도교육청에 결식아동돕기성금 전달 및 교육감, 실·국·과장과의 간담회



울산·경남도회 해외시찰 기념(지역협의회 협력)



산재치료관련 병원과 울산·경남도회 및 지역협의회 협력의 단체협약 체결

## 경기도회

# 관내 교육청 및 시·군 시설공사발주 중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추진

경기도회(회장 김영완)는 1992년부터 관내 교육청 및 시·군의 건설공사 발주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요청 및 건의를 하고, 발주 담당관과 간담회를 통해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 성과로 특히 관내 교육청 발주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있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설비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홍보를 위해 매년 결식아동돕기에 동참, 1천만원의 성금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다.◎



김영완 경기도회 회장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에게 결식아동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장학사업

경기도회는 설비건설업계의 후학양성을 위해 대림대학, 수원과학대학, 신홍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이 대학 설비학과 학생들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 매년 12명에게 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회원사 임직원의 자녀 중 대학 설비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각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회

# 한·중 설비협회 협력증진 및 친선교류 활동



경기도회는 중국 안휘성 안장협회를 방문하여 상호협력증진과 친선교류활동을 더욱 돈독히 했다.

경기도회는 지난 2003년 중국안휘성안장협회와 자매결연협의를 체결, 상호 친선교류 및 정보교류를

통해 양국 설비건설업계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강원도회

# 분리발주 및 사회봉사사업 추진



▲ 강원도회는 강원도 교육청을 방문, 분리발주를 확대 적극 건의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했다.

###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강원도회(회장 강현우)는 도내 설비건설업역 확대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청 및 도내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강원도회는 2006년 5월 8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2003년 이후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에서 분리발주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일부 시·군 교육청이 통합발주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분리발주 실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BTL사업 추진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참여,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평가시 지역전문건설업체 우대제도 방안 강구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강현우 회장 외 운영위원들은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설비건설업계의 현안사항 등을 건의했고, 한장수 교육감은 도내 업체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봉사사업



▲ 강원도회는 회원사 간의 친목향상을 위해 매년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1.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강원도회는 강원도 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사회봉사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했다. 강원도회는 2006년 5월 8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회원사를 상대로 모금한 3백만원을 한장수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강현우 회장은 “강원도내 가정 중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한장수 교육감은 “설비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해 주신 뜻 깊은 성금은 강원도 내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 2. 강원도회 수재의연금 기탁

강원도회는 지난 한 해 강원도가 수해와 홍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강원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회봉사사업 중 하나로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강원도회는 2006년 7월 28일 강원도내 신문사인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를 방문, 수재의연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강원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강원도회는 지역민들의 복구

작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재의연금을 강원도내 신문에 기탁한 것이다.

강현우 회장은 성금을 기탁하면서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이 절망을 딛고 희망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회원사 친목도모 단합대회 개최

강원도회는 2006년 5월 27일 강원도 태백산에서 강원도내 회원사 간의 친목향상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친목도모와 함께 태백산 일대의 자연정화 활동도 함께 했다.

이날 강현우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강원도내 회원사들은 태백산 등반을 통해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함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했다. 또한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지역 회원사들의 업역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

## 충북도회

## 시공품질점검위원회 활동 현황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회원사들의 시공품질 향상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지난 해 시공품질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함에 따라 충북지역 시공품질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지난 2006년 2월 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 지난 해까지 총 7회의 시공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실시결과 충북도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발주자들의 이미지 쇄신 등에 힘입어 향후 더욱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다.

## 1. 시공품질점검위원회 활동 목적

충북도회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해 관계 부처에 공문발송 및 방문을 통해 분리발주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언론을 통해 분리발주의 중요성등의 활발한 홍보로 분리발주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분리발주를 수주한 회원사들의 시공품질 및 기술개발과 성숙된 시공관리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시공관리상의 문제점 및 시공품질 저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후관리 등을 우려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회는 시공품질점검위원회를 구성, 설비건설업계의 자율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 및 설비건설업계의 위상 제고와 함께 발주기관의 부정적인 시각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둬으로써 분리발주 공사를 더욱 확대기로 했다.

시공품질점검은 일반사항,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공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현장 점검 후 평가회의를 통해 철저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피점검 회원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성실시공으로 타 회원사의 모범이 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도 통보하여 기계설비업계의 업역확대 및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2. 시공품질점검위원 현황

	성명	업체명	직위
위원장	김성배	(주)세연플랜트	대표이사
위원	박문현	미성철비산업(주)	대표이사
위원	김주승	주성기연(주)	대표이사
위원	이송우	백만건설(주)	대표이사
간사	정두순	(주)SK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3. 운영방침

### 1) 운영방침

- ① 점검대상공사  
회원사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 ② 점검대상 자격 요건
  - 공공공사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 발주관서의 점검 요청 공사
  - 민간공사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 ③ 점검횟수  
공사현장 당 1회 이상
- ④ 발주자 의견 수렴  
발주자 시공평가 의견서 접수
- ⑤ 점검 후 합동 회의  
시공품질점검위원, 발주자, 현장대리인(소장)이 한 데 모여 점검한 현장에 대한 평가 회의를 거친다.

### ⑥ 결과 통보

합동회의 결과 도출된 의견은 점검을 받은 회원사에 게 반드시 통보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 4. 점검활동 현황

### 1) 사전 준비

- ① 공사현황 파악  
감독관, 공사금액, 공사 진도 등 공사현황을 파악 한다.
- ② 시공품질점검위원 별로 점검항목 협의
- ③ 점검표, 손전등, 안전모, 보호구 등 현장점검에 필요한 준비물 점검



2) 현장점검 현황

현장명	회사명	대표자	점검일시	발주기관	공사금액(원)	특기사항
각리초등학교 교사 증축 기계 설비공사	오련기업 (주)	정진수	2006.2. 21	충북 청원 교육청	358,333,000	시공상세도(Shop Draw) 작성 후 시공 음용수 배관에 비석면 가스켓 사용
목령중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미성설비 산업(주)	박문현	2006.5. 12	충북 청원 교육청	398,346,384	헤더 등에 설치된 드레인 배관을 배수 트렌치까지 연장 일부 구간 Vent 설치 필요
신동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공사	(주)한솔엔지니어링	김종묵	2006. 8. 1	신동아 아파트 관리소	577,900,000	외부 입상관 신축이음 설치 고소작업 안전관리 철저
목령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 설비공사	코오롱종합설비(주)	민병현	2006. 8. 1	충북 청원 교육청	350,000,000	부스터 펌프 베이스를 스텐 일체형으로 제작 및 방진구 처리 헤더의 스페어관 캡 대신 맹플랜지 마감, 일부구간 Vent 설치 필요
운동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 설비공사	(주)성진플랜트	오성진	2006. 9.19	충북 청주 교육청	421,321,726	주요공사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른 업계 대책 수립 필요 감독관청 및 타 공종(건축, 전기, 소방) 간의 유대관계 원만
셋별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 설비공사	(합)용석기업	서권석	2006.11.21	충북 청주 교육청	381,091,223	스텐 배관 버티플라이벨브 일반볼트 대신 절연볼트로 체결 시공관리에 만전, 일부구간 Vent 설치 필요
원현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 설비공사	(주)영진방재설비	김인순	2006.11.21	충북 청주 교육청	381,662,000	정리정돈 및 자재 관리 상태 극히 양호 표준으로 삼을만한 드레인 배관처리



제1회현장점검 : 각리초등학교 교사 증축 기계설비공사



제2회현장점검 : 목령중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제3회현장점검 : 신동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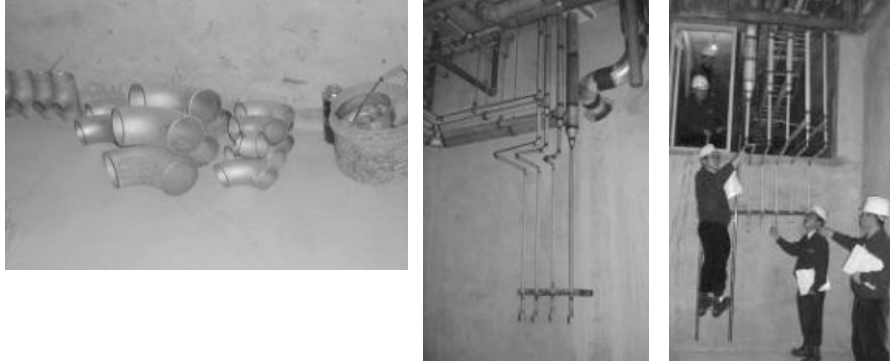
제4회현장점검 : 목령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제5회현장점검 : 운동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제6회현장점검 : 셋별초등학교 교사 신축 기계설비공사



제7회현장점검 : 원현초등학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 5. 점검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시공품질점검위원회는 회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해 총 7차례에 걸쳐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점검을 받는 회원사는 시공하기에도 바쁜 현장에서 점검준비로 많은 부담이 있으나 점검을 받음으로써 시공품질을 한번 더 다지게 됨은 물론 설비건설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발주자에게 부각됨으로써 분리발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등의 부대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공품질점검위원회의 현장점검 활동이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회원사들의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번의 현장점검으로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현장 당 점검 횡수를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작은 공사라도 정성을 기울여 시공해야 하므로 점검대상 현장의 공사금액을 현행 3억 이상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성배 위원장은 “처음에는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예상하지 못했으나 의외로 회원사들의 반응이 뜨거워 점검활동에 대한 책무와 긍지를 느꼈다”면서 “충북지역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에 대한 회원사들의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 6. 향후 발전방향

충북도회는 시공품질점검위원회의 원년 활동에 매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충북지역의 품질향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인 점검횡수 증가 및 점검대상 공사현장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점검활동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해 7회에 그친 현장점검을 올해에는 더욱 활성화하여 충북지역 회원사들의 시공품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

## 전북도회

# 교육청, 지열냉난방공사 등 분리발주 수주 성과

**전**북도회(회장 정성조)는 지난해 회원사의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기관에 분리발주에 대한 건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최근들어 BTL이 활발해짐에 따라 분리발주가 많았던 교육청에서도 BTL로 전환되는 공사가 많아지면서 분리발주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회는 지자체 단체장과 3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한편 교육청을 비롯한 52개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홍보한 결과 지방자치기관 등에서 총 137건의 분리발주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총 106억1천7백33만8천287원의 공사금액이 설비건설업계로 수주되는 기쁨을 토했다.

또한 물품구매로 발주될 지열냉난방공사를 전북도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3건의 지열냉난방공사가 기계설비공사로 발주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성조 회장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교육청 공사는

분리발주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BTL로 묶이는 바람에 분리발주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도회는 교육청 등을 방문, 분리발주에 대한 건의를 활발히 했다”고 밝혔다. 정성조 회장은 또 “특히 지열냉난방공사는 새로운 분야로서 산자부와 얽혀 있어서 우리 업계가 확실히 잡지 않으면 뺏길 수도 있다”면서 “일부에서 특허로 묶어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전북도회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도의회 특별감사까지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지열냉난방 공사가 기계설비공사로 발주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성조 회장은 “지열냉난방이 우리 기계설비 업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 업계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회원사들도 시공기술 습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업역으로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북도회는 지난해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